

종계 수탉부족, 환우가 부채질

□ 취재/김종준 기자



종 계수탉 관리 문제가 불거진 것은 여름철에 접어 들면서 수정율이 떨어지고 수탉의 폐사율이 높아지면서이다. 이로 인하여 농가들은 수탉을 필요에 따라 공급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문제의 발단으로 지적되는 것은 '97년 10월 이후 월 평균

병아리 가격이 생산비 이하에 거래되는 기간이 길었고 사료 가격 등 생산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PS농장의 경영악화를 가져왔다. 그로 인하여 종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 중심으로 종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환우를 한점과, 전반적

으로 종계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데 기인할 수 있다. PS 농장의 환우 증가와 신계군 입식의 감소로 GPS 농장에서는 남는 PS물량을 CC로 판매 할 정도로 사태가 악화되었다. 이런 사태악화로 말미암아 환우 계군이 생산에 적극 가담하는 98년 하반기 종계수탉 수급과 환우의 문제점을 분석코자 한다.

1. 종계수탉 관리

우수한 종계수탉의 조건은 장기간 수정시킬 수 있는 정액을 생산하는 것이다. 수정율을 높이기 위한 육용종계 수탉 관리는 육성기간 동안 체성숙과 성성숙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

표1. 수정 가능한 정자세포수 및 수정 가능일수

분류	수정이 가능한 정자세포수		수정가능일수		
산란시기	산란초기	산란후기	주령	35주	50주
수탉정자 세포수	1억마리 이하	2억마리 이상	수정 가능일	9~10일	4~5일

- * 46주령 이후 수탉의 정자생산량이 현저히 감소
- * 위 자료는 미국 어번대학 맥나니밀 박사 논문 참조

요하다. 예를들면 수탉 4~5주령에는 정상적인 체중을 가진 계군과 미달되는 체중을 가진 계군, 약추 등으로 3분류하여 약추나 체중이 미달되는 계군이 표준 체중에 도달되도록 분리 사육하여 약추나 체중이 미달되는 계군이 정상계군에 가깝게 하는 것이다.

6~13주에는 성장이 왕성한 시기이므로 이 기간동안에는 표준체중보다 많은 차이가 나면 성계시에 수정율을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10~13주령에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올 여름을 겪었던 수탉들은 젊은 계군 보다 노계군일수록 폐사율이 높았는데 주 원인이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었으며 스트레스 회복에 있어서도 노계군은 상당한 시간이 경과 후에도 호전되지 않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요즘과 같이 환우가 주령에 관계없이 이루어질 경우 노계

군의 경우는 환우 회복기에 영양제 투약 및 방역관리를 꼼꼼히 점검해야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수탉에서 많이 나타나는 과비 현상은 수정율 저하에 직접 관계가 있는데 표준체중을 유지하기 위하여 갑자기 사료량을 줄이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점차적으로 사료 양을 줄이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수정율이 떨어져서 신계군으로 수탉을 일부 교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기가 적절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으므로 교체 시기는 농장마다 계군 성질, 몸집 등을 잘 관찰한 뒤에 해야 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30~40주령의 계군을 투입 시킨다.

2. 신계군 확보 어려움

종계수탉은 주령이 많아지면 수정율이 저하되므로 일정

한 시기가 되면 수탉을 보충한다.

수탉이 50주령이 넘었거나 환우한 후에 수정율을 높이기 위하여 30~40주령된 계군으로 전부 또는 50%선에서 교체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신계군을 입식할 만한 재정적인 여력이 없고 병아리 시세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신계군을 입식한 농장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신계군 수탉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3. 수탉 사육기간 연장

신계군 입식을 포기하고 자체적으로 수탉 공급을 하지 못하는 농장은 기존의 수탉을 최대한 생산에 가담시키게 된다. 이럴 경우 수탉의 도태 주령은 생산성과 관계없이 미루어지게 된다.

환우하지 않는 계군의 경우 암탉의 산란율이 50%선만 유지된다면 수탉 사육기간을 70주령까지 연장시키고 있다.

만약 64주령에 환우를 한다면 장·단기 환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거의 90주령까지 노계군이 사육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4. 수탉의 판매 형태

수탉 분양은 암탉수의 15% 선이다. 물론 소위 덤까지 계상한다면 약 18%에 가깝다. PS업자들은 15% 수탉을 암탉과 합사전에 암탉수의 10~11% 정도를 선발하고 나머지 3~4%는 따로 관리한다. 1만 수 암탉을 기준으로 할 때 약 300수의 수탉이 남게 되는데 수탉만 따로 관리하다 보면 서로 싸우기 때문에 관리에 문제가 많다고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케이지에 사육하는 농장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다. 그러므로 인근에 필요한 농장이 있다면 일정액(약 15,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있다.

복철일 경우에는 삼계업자들이 백세미 생산을 위하여 시장거래가격보다 좋은 거래 조건을 제시하여 수탉을 구매하고 있고 혼한 경우는 아니

지만 복철이 지난 후에는 오히려 수탉이 종계업자에게 되팔리는 경우도 있다.

수탉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품종에 관계없이 생산에 가담시키고 있는데 이럴 경우 종계 품질관리나 질병관리가 손쉽지 않기 때문에 암탉과 다른 품종의 수탉을 생산에 가담시키는 것은 고려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5. 수탉의 강제환우

우리나라의 PS농장중 몇 곳을 제외하고는 전부 환우를 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환우를 정당화 시킬 수는 없지만 환우하여 법정기간내에 사육하는 것과 경제주령이 넘는 것을 환우하는 것과는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생산성에 있어 사뭇 다르다. 수탉의 환우는 암탉의 환우와는 차이가 있다.

예를들면 환우를 하게되면 수탉과 암탉은 분리사육하고 수탉의 절식은 5~7일의 짧은 절식 기간을 갖고 이후에는 70g/m²/일을 먼저 급이하고 매일 10g/m²/일씩 증가시켜서 130g/m²/일에 고정시킨다.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이런 급이 방법은 암탉의 시산까지 지속한다. 수탉의 폐사는 1%선이다.

6. 하반기 수탉 수급 전망

종계업자에 의하면 '98년에 5~8월사이에 환우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보통 환우기간과 초산이 떨어지는 시간을 감안하면 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5~8월 사이에서 몇 월에 환우가 많이 들어갔고 몇 주령인지 정확하게 집계된 바는 없지만 업계 흐름으로 판단해보다면 64주령이 경제 주령인

표2. 수탉 수급 현황

품목 계군	입식 시기	분양 계군수		환우 제외가능 계군수		환우가능 계군수		수탉 수	
		우	(우의15%)	우	(우의15%)	우	(우의9%)	잉여분	부족분
노계군	'97. 4~'97. 9	2,001,680	300,252	492,600	73,890	754,540	67,908	-	33,954
신계군	'97.12~'98. 3	942,960	141,444	-	-	-	-	28,288	-

* ① 환우제외가능계군 : '97.4~'97.9 사이 입식한 종계중 환우하지 않는 농장의 종계수를 말함(분양수 기준).

② 환우가능계군 : '97.4~'97.9 입식한 계군중 환우제외가능계군을 제외한 계군수의 50%에 해당함.

③ 수탉수 : 잉여분 : 분양된 암탉수의 3%

부족분 : 환우가능 수탉의 50%

만큼 50주령이 넘으면 환우하고 시세가 가장 좋지 않을 때 환우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추정 할 때 '97년 4월부터 9월에 입식한 계군의 환우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입식된 종계수는 200만 여수로 암탉과 합사하여 사육된 수탉수는 암탉수의 10%인 20만수가 된다.

이중 50%는 환우후 신계군으로 교체된다고 가정할 때 약 4만5천수의 수탉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환우를 하지 않는 농장들을 제외한다면 환우한 수탉은 6만7천수로 예상되며 이중 50%가 신계군으로 교체되어야 한다고 할 때 3만3천수의 수탉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교체될 가능성성이 높은 수탉은 '97년 12월부터 '98년 3월에 입식된 종계 수탉 중 2만8천수가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환우한 계군에 비해 신계군의 수탉수는 5천수 이상이 모자란다.

또한 환우 시기가 5~8월에 걸쳐 있어 덥고 습한 기간이 었고 노주령이었기 때문에 암탉보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수

닭의 생존율이 예상보다 더 낮을 수 있어 수탉을 찾는 농가가 더 많을 수 있다.

수탉이 부족 현상으로 농장 간 거래되는 가격은 기존 가격 보다 더 상승될 전망이고, 수탉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 품질이나 주령에 관계없이 수탉을 구입할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종계업계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을 미리 짐작하고 있었는데 그들에 의하면 문제의 근원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GPS 농장에서 종계수탉의 분양수를 조정하면 농장간 수탉 판매가 없어질 것이고 자연적으로 환우는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15%의 종계수탉 분양을 받는 것은 수탉 중 우량 개체를 선발하는데 필수적이므로 종계수탉 분양수수를 줄이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밝히고 있고 또한 올 하반기에 종계 수탉 수가 품귀현상까지 예상되는 시점에서 분양 수수를 줄이는 것은 종계업계를 더 혼란속으로 빠질 위험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결국 하반기에 수탉부족은 기정 사실로 굳어지고 있지만

치유방법은 찾지 못하고 있다.

7. 해결할 과제

수탉 부족현상은 종계사육 법정기간인 16개월만 사육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종계업자는 종계장 경영 여건상 법정기간만 사육한다는 것과 환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의 상황에서 종계업을 영위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고 계속 종계사육 기간을 연장한다면 수정율 저하, 수탉 수요급증으로 인한 가격 상승, 병아리품질저하, 전체적인 생산과잉 등등 농장경영에 더 큰 걸림돌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결국 종계를 법정기간만 사육한다면 앞서 지적한 위험요소를 줄이고 종계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단, 종계업계가 안고 농가 부채 해결과 구조조정 방향 설정이 하루 속히 선행되어야 쉽게 풀릴 것으로 보인다. **양계**